

# 화엄경서 우리가 증득 할 것은?... 신심, 발심, 보리심



## 화엄경 80변상도 이야기

자훈 스님 지음 | 사유수 펴냄 | 6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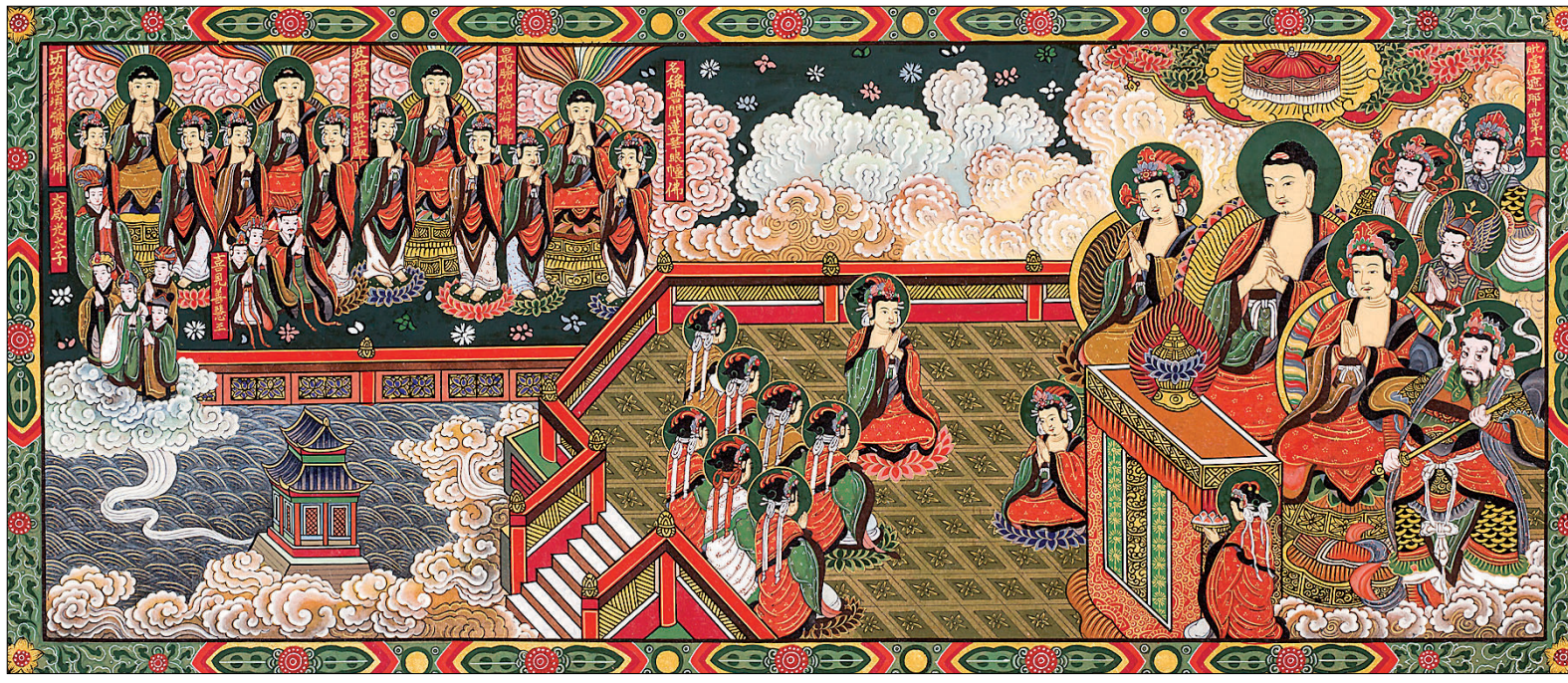
《화엄경》은 부처님이 광명으로 우주법계를 보여주고 그 위신력으로 보살들이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린다. 특히 해인사 장경각 《화엄경80변상도》는 방대하고 심오한 화엄경 교의를 함축해 조각한 세계 유일의 목판으로 화엄경 80권의 핵심 내용을 잘 표현해 거듭 놀라고 감탄하게 된다.

조계종 경전연구회 회원으로 13년째 활동중인 자훈 스님(금강선원 주지·사진)이 《화엄경80변상도》를 해설한 책을 내놓았다. 책은 명패 순서에 따라 전개되며 명패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화엄경의 핵심을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자훈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은 수행자로서 한 순간도 내태어지지 못하도록 다잡아 주는 소중한 경전”이라며 “화엄경은 보살행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극찬했다.

저자에게 화엄경과의 인연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1990년 문경 봉암사 법당에 화엄경 80변상도 벽화를 봉사하는 현장에서다. 저자는 당시 벽화 설명을 돕기 위해 변상도 원고 정리 작업에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저자는 《화엄경 80변상도 주해서》를 출간했다.

저자는 “처음 해인사 고려대장경 화엄경변상도 목판 인쇄본을 대했을 때가 문득 생각합니다. 처음엔 금방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림이 복잡해 보이고 막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



제1회 법보리장회, 6품, 서분, 신, 비로자나품을 살하는 변상도 11권에서는 본격적인 화엄 설법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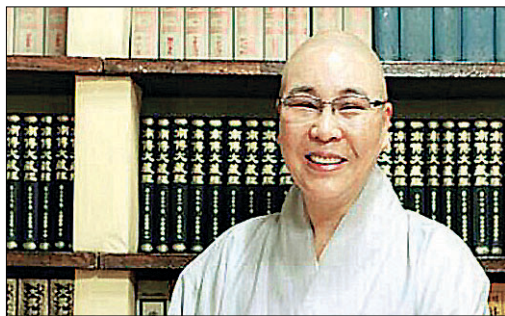


그림 속 명패 경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저자, “화엄경은 보살행의 극치” 극찬 변상도 불화장이 해인사판 고증해 재현 잘못 새겨진 부분 바로잡아 부록에 수록

펴보니 친절하게도 그림속에 내비게이션처럼 명패가 기록돼 있더군요. 경전 속에서 대조해 내용을 찾아 하나하나 확인해 갈수록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불보살의 세계가 깊고 넓고 오묘해서 마치 엄청난 역사에 동참하는 듯 환희로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힌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취 불화와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저자는 화엄경 관련 서적을 모조리 찾

아 읽었고, 각각의 화엄성지 순례와 답사를 하면서 박물관에 들러 자료를 모았다. 그런데 변상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자가 가장 크게 고민 한 것은 변상도 각 권의 그림이 경전 내용 순서와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변상도는 경전 앞이나 중간, 뒷부분의 중요 대목을 골라 표현했기 때문에 연결성이 떨어졌다.

저자는 “그런 점을 보완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상도 그림 속에 명패로 새겨진 부분

을 중심으로 경전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는 방법을 취했다”며 “각 권마다 중요한 부분은 거의 조각으로 표현돼 있고, 화엄경의 주옥같은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어 감탄하게 됐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화엄경 80변상도》 그림과 경전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 화엄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임을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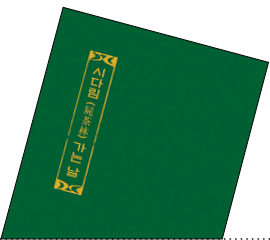
변상도서 비로자나부처님은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설법하는 보살과 대중들은 부처님 가까이 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화엄경80변상도》는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이 해인사판을 원본으로 철저히 고증해 재현한 채색화이다. 각 권마다 중요 대목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쉽게 화엄경을 이해하는 안내관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책의 큰 특징이다. 또한 한글 세대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려운 한문 용어를 최대한 풀어 썼으며, 해인사 장경각 목판 화엄경변상도서 잘못 새겨진 부분을 바

로잡아 부록에 실었다. 따라서 부록에 실린 화엄경 도표를 보면서 책을 따라가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 비하면 화엄경은 사실 39품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다. 게다가 깊고 오묘한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다뤄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엄경을 대할 때는 첫째 환희심을 내야 합니다. 환희심이 일어나면 신심이 생기고, 그러면 발심하게 되죠. 그 속에서 반드시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화엄경 속에 일체중생들이 부처님을 향해 찬탄 하는 대목이 있는데, 환희심이 없다면 결코 찬탄은 불가능합니다. 찬탄은 긍정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 가능하죠. 또한 찬탄 할 수 있어야 신심이 일어납니다. 결국 화엄경서 유도하는 것은 신심, 발심, 보리심인 것이죠.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환희심을 내면 반드시 화엄경이 좋아질 것이고, 부처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러 저자는 “화엄경서 독특한 점은 광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인 삼매에 듣기 이전에 항상 ‘방광(放光)’을 행하셨습니다. 일체대중이 그 광명만 보고도 찬탄을 했다고 전합니다. 발바다, 발가락, 발목, 무릎, 가슴, 입, 미간서 빛이 나왔다고 한 것은 상징적으로 빛을 발하는 각각의 신체부위 높이에 따른 화엄의 계위를 의미하죠. 뒷부분에선 전부 미간에서만 광명을 행하십니다. 즉 마음이 형상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광명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명을 쏘면 일체 시방세계가 그 속에 들어옵니다. 부처님 마음을 보고, 환희심을 내고, 찬탄을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내용들이죠. 결국 불교서 말하는 마음은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칙칙한 마음을 가졌다면 광명을 낼 수 없을 것이고 광명을 바라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시다림 가는 길

범철 스님 엮음 | 부다가야 펴냄 | 5만원

“부처님은 태어남을 창공에 한 점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죽음을 한 점 구름이 사라짐과 같다고 하셨다. 무상함을 배우고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은 바로 죽음이다”

불교 의식집 《시다림 가는 길》을 펴낸 범철 스님(원효암 주지·사진)은 죽음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죽음을 제대로 직면하고 알아 그 가운데 참된 무상함을 아는 것은 불교 명상법 가운데 하나이다. 큰 스님들은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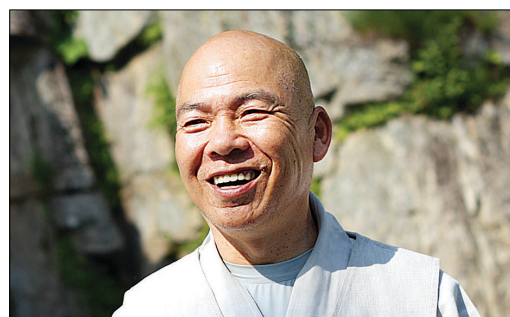
요히 죽음을 받아들인다. 임종의 순간을 바라보며 중생들은 마지막 법문이라 여기고 그 순간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범철 스님은 책 《시다림 가는 길》을 통해 불교의 성스러운 임종 의식을 되살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책을 편찬하게 됐다고 전했다.

스님은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스님의 영불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법문독송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옆에서는 곡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며 현재 장례문화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범철 스님은 이어 장례 문화가 달라져야 하며 그 가운데 불교 의례가 확실히 자리 잡을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다른 불교 이웃나라를 보면 경건함과 성스러움으로 슬픔을 위로하는 가운데

# “죽음은 무상을 가르치는 최고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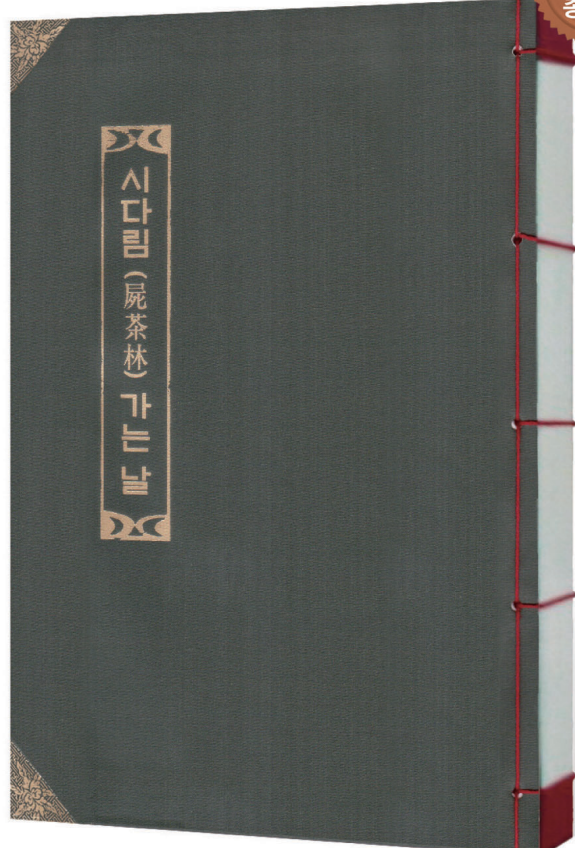
스님의 법을 청해 영가를 천도한다”며 “불교 의식집 《시다림 가는 길》은 전통 불교 장례 의식을 담아 간추려 정리한 책으로 우리나라 불교 장례 문화를 성숙하게 되돌리기 위해 엮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 《시다림 가는 길》은 불교 장례의식 ‘시다림’을 정리했다. ‘시다림’(尸茶林)은 인도 시타바나

(Sitavana, 寒林)서 유래했다. 시타바타는 추운 숲으로 인도인들이 시체를 버리는 곳이며 인도 왕사성 옆에 위치한다. 시타바타는 죽은 시신을 숲에 버리면 독수리 떼들이 날아와 먹어 치우는 조장(鳥葬)의 풍습이 행해진 곳이다. 시다림에 한 자 차다(茶)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시체를 숲에 두고 차를 올린 것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뜻이 바뀌어 망자를 위해 설법하는 것을 시다림이라 하고, 이를 시다림 법문이라 부른다.

이 책은 시다림에 대한 정의와 대비의 뜻을 정리했으며 시다림 첫날에 진행 할 사자단작법, 시다림 시식 및 독경을 적어두었다. 또한 산소 및 화장장, 유골 수습 및 유골 봉송, 위패봉안, 매장식까지 장례 절차에 맞는 모든 방법을 정리했다. 특히 한자와 함께 한글을 까지 엮어 두어 쉽게 접근하도록 배려했다.

범철 스님은 “책은 스님 뿐 아니라 일반 교포사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 했다. 목탁과 요령(搖鈴)을 울려야 하는 시절 까지도 표시해 한번 정독만 하면 시다림 의식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불교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30년 동안 영불 하고 통도사 노전을 하며 학인을 가르쳤는데 시다림 관련 질문이 많았다. 그래서 5년 동안 구상하고 계획해 책을 내게 됐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또한 책 말미에는 영가를 위한 〈불설아미타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 등을 적어두었다. 범철 스님은 “시다림의 핵심은 생과 사의 무상함을 알아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영가가 죽음 후 망망대해와 같이 갈 길 몰라 헤맬 때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하성미 기자



#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시다림 屍茶林 가는 날

임종 후 시다림 첫날 사자단작법부터 발인 화장 유골봉안 매장 의식까지

범철스님이 오랜 집전 경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시다림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직접 집전하려는 이나 불교의 성스러운 임종의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글로 풀어 쓴 알기쉬운 임종의식 전과정 수록

- 사자단작법 (시다림-첫째날)
- 영반 및 독경(시다림 둘째날)
- 화장의식(화장장에서)
- 위패봉안(반혼제)
- 시다림 시식 및 독경
- 發鞠日(산소나 화장장으로 가는 날)
- 유골 수습 및 유골 봉안
- 매장식(산에서)

범철(凡哲)스님은 천수경 반야심경 팔양경 관음시식 참선곡 광명진언 등 영불독경 CD를 다수 펴내었다.



범철 편저 | 한장본 | 298쪽 | 값 50,000원

‘부다가야’는 삼세의 래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지로, ‘도서출판 부다가야’는 부처님의 길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불서를 펴냅니다.

대표전화 | 051)865-4383